

국가예산 증액 '사활'

정현을 익산시장, 국회 방문... 예결위원들에 초당적 도움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은 '예산 국회' 막이 본격적으로 오름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인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목표액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 시장은 7일 국회를 방문해 김수흥·한병도 지역국회의원 및 예결위원·의원 등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지방위정 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을 방문해 국가동물케어산업의 기반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우리나라 석재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국립 석재산업 진흥센터 설립 등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건의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 위원인 이용호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조수진·정운천·양정숙·전용기 의원 등 여·아를 넘나들며 핵심 인사를 만나 시장 핵심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분야별 핵심사업으로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백제 금마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지난 8월 공모에 선정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 상담센터 설립, 수도권 접근이 불리한 충청·전라권 교통편의 및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등 문화관광·복지·SOC 등 전분야 걸쳐 예산 증액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한병도 지역국회의원을 찾아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회단계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는 7일 어청도 섬마을을 단위 LPG(액화석유가스) 시설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섬지역 연료문제 해결 '착착'

군산시, 어청도·개야도·명도·말도 LPG시설 구축

군산시는 7일 어청도 섬마을을 단위 LPG(액화석유가스) 시설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섬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연료 공급이 불안정해 동절기 난방 및 취사 중단의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섬 마을에 직접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섬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어청도는 배관망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 공사 발주 후 내년 중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LPG시설 구축사업 공모에 군산시 어청도, 개야도가 선정됐으며 개야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예정이다.

또 2022년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명도 사업을 추진하며, 말도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봉 항만해양과장은 "섬 주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 정부,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섬의 연료 공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민선8기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 체감 공약 실천

군산시 "시민 참여 확대... 시민 체감 정책 수립"

강임준 군산시장의 이끄는 민선8기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시민참여와 체감을 느끼는 공약실천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7일 민선8기동안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공갈등 사례가 많은 분야의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공공갈등의 사안과 규모에 따라 갈등진단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공청회 개최 등 맞춤형 갈등 대응 절차를 마련해 시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반올림'을 운영하며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경영대회를 개최해 시장혁신정책발굴 및 제안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방안 모색 등 다양한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반올림은 지난해 1기를 시작해 2기 활동에 돌입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굳어져 있는 조직'에 대한 시민 불만을 줄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자 이미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민선7기부터 '시장과 특·특', '시민참여예산제도' 등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왔다. 특히, 활성화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가 공모하고 시민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구성, 검토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에는 더욱더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1가구 1심폐소생술 교육' 주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조치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1가구 1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겨울철 재난·재해를 대비해 시설물 안전 점검과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한파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들

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민선 8기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될 인사이동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행위 근절 총력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난 등으로 증가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4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행 근절을 위해 변호관 영치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갱신 기간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라이브커머스로 청년농업인 판로개척

익산시가 청년농업인들의 역량 향상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농업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해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농산물 판매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발맞춰 올해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으로 라이브커머스 기반 시설인 '꿈꾸는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지난 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라이브커머스 전문교육에 돌입했다.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교육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다.

직접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고 상품 개발, 입점, 마케팅 능력 향상 등 실전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져 청년농업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조성된 청년농업인 협업공간은 농업인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돕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형근로청년수당, 청년 만족도 '최고'

익산시가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만18~39세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장 3년까지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1,2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매우 만족, 13%가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도가 9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만족도 98%와 같은 수준이다.

시는 이 밖에도 수당 사용 용도, 회

사향 등 다양하고 심도 깊은 항목으로 구성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살렸다.

특히 매월 30만원씩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를 지급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의 주 사용용도는 '식품, 교통 등 생활비'가 73%, '취미·문화생활' 14%, '자녀 교육비' 8% 등으로 집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에 대해 평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익산시 청년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명실상부한 익산의 대표 청년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